

# 장흥우등볶음면...삼합파스타... 맛깔난 지역 특산물로 맛집 키운다

### 郡, 한우·표고·낙지 등 활용 면요리 개발 보급 '주력' 김성 군수 "다양한 아이디어로 미식 관광 로드 구축"

장흥군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완성도 높은 맛집 육성에 박차를 가하며 미식 관광지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10일 장흥군에 따르면 최근 군농업기술센터에서 '장흥 맛집: 장흥맛을 보려면' 메뉴개발 교육 성과평가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는 장흥 특산물을 활용한 새로운 메뉴를 선보이며, 지역 음식문화 발전과 외식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발된 메뉴들은 장

흥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흥 맛집 교육은 외식업소 운영자와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난 10월5일부터 11월20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장흥 특산물인 한우, 낙지, 표고버섯 등을 활용한 면요리와 한상차림 실습이 이뤄졌으며 2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교육은 김정숙 남도음식명인(2023년 발효부문)의 총괄 운영으로 진행됐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메뉴 개발과 외식업체에 완성도 높은 레시피 보급에 중점을 뒀다. 특히 메뉴 개발은 지역 특산물의 고유한 맛과 현대적인 감각을 조화롭게 결합해 지역 음식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성과평가회에서는 장흥우등볶음면, 채식주의자, 닭이운면, 삼합파스타, 울엄마된장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신메뉴를 선보였다. 이들 메뉴는 내빈과 참석자들의 평가를 받으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전남도의 지원을 받아 추진한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계승 활동 지원 시범사업’과 연계해 전통장을 활용한 면요리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전통장과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의 다양성을 넓히는 데 기여하며 장흥의 음식문화를 풍성하게 만들었다.



장흥군농업기술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개발된 메뉴의 레시피복을 발간해 지역 내 외식업체와 공유하고, 개별 컨설팅을 통해 현장에서 메뉴를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 메뉴를 지역 대표 맛집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K-푸드의 비결은 가장 한국적인 맛에 있다”며 “장흥의 건강한 먹거리와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로 장흥만의 미식 관광 로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흥=노홍렬기자



보성군이 오는 12월 '보성 조성리유적'의 국가유산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발굴이 진행 중인 '보성 조성리유적' 현장 모습.



(보성군 제공)

## ‘보성 조성리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 마한 소국 제의 장소 확인 내일 학술대회 개최

보성군이 '보성 조성리유적' 국가유산 지정을 위해 학술 대회를 개최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일 보성군에 따르면 12일 조성리명정복지센터에서 (재)대한문화재연구원과 함께 '보성 조성리유적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보성 조성리유적'의 국가유산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

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사람과 신을 잇는 대목(大木)의례와 입대목으로 추정되는 주공(古宮)이 발견된 '보성 조성리유적'을 최초로 공개하는 자리로 의미가 깊다. 보성군과 (재)대한문화재연구원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국가유산 지정 학술대회를 통해 전남

동부에 분포한 여타 유적들과 구별되는 '보성 조성리유적'의 가치를 전달하고, 보존 관리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할 예정이다. 또한 생활, 방아, 분묘, 수리시설 관련 복합유적으로서의 가치를 확인하고 마한문화의 주술적 성격을 확인해 학계와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전남에 분포된 마한 유적과 엮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현장 등록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6개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 조사 사업으로 조성리 마한 유적을 발굴하고 있다”며 “조성리유적의 가치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언기자

## 곡성, 평생교육 활성화 '우수' 시군 선정

### 800만원 인센티브 확보...평생학습도시 '자리매김'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10일 “올해 전남도에서 주관한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남도에서는 3년 전부터 매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왔다. 평가항목은 전담조직, 평생교육예산, 공모사업이나 자체 사업에 대한 운영 실적, 우수사례 등 종합적으로 결과

를 분석한다. 최우수, 우수, 장려로 나눠 시상과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평가에서 곡성군은 이번도 빠짐없이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면서 평생교육에 앞서는 도시로 인정받아 왔다. 특히 올해는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에서도 최우수상이라는 좋은 성적을 받아 선진적인 평생학습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 평가에서



곡성군은 가정대상인대학연계사업, 전국단위 수상실적, 전남도 공모사업 참여 등 모든 부문에서 가점이 인정됐다. 곡성군 관계자는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면서 800만원의 인센티브도 받고, 업무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기자

### “올해의 10대 뉴스 뽑아주세요” 광양시, 15일까지 온라인 설문

광양시는 10일 “오는 15일까지 올해 광양시를 빛내고 가장 관심을 끌었던 '2024년 올해의 10대 뉴스'를 선정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0대 뉴스' 설문조사는 올해에 광양시에서 추진한 주요 시책과 현안 사업 중 이목을 끈 10개 뉴스를 선정하는 투표다. 설문조사는 광양시청 홈페이지(배너)를 경유해 네이버 폼(https://naver.me/GNWHMFnF)에 접속하거나 광양시 SNS(블로그, 카카오톡 등)에서 링크를 눌러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설문 참여자는 사전에 부서 의견을 취합해 만든 20개 뉴스 중 5개 뉴스를 선택할 수 있다. 광양시는 설문조사 득표수가 높은 10건의 뉴스를 '올해의 10대 뉴스'로 선정할 계획이며 오는 18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과를 발표한다. /광양=양홍렬기자

## 플랜트 건설 현장 배치 전 건강검진 추진

### 여수 노사민정협의회 '노사 상생발전 공동선언문' 채택

여수시가 노사민정 각 분야의 대표자와 2024년 하반기 노사민정협의회를 갖고 '여수국가산단 노사 상생발전 공동선언문'을 채택 선포했다. 10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협

의회에서는 올해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성과와 여수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 지역 일자리 대책 실적 보고 등이 진행됐다. 또한 노동정책 추진 과제 중 단기 성과

창출이 가능한 과제를 선정하고, 지난달 25일 열린 '플랜트 건설노동자 현장배치 전 건강검진표준화 제도개선 마련 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내년도 제도개선 추진을 최종 의결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노동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노사민정 동반성장의 목표를 달성하자”고 말했다. /여수=김진선기자

## 담양군,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

### 내년 시행 '사운드워킹 청각여행'... 이해도 ↑ 교육 운영

담양군은 “최근 이틀간 문화관광해설사 20여명을 대상으로 문화관광 해설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비영리 공익법인인 GKL 사회공헌재단과 함께 개발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을 앞둔 '사운드워킹 청각여행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 1일 차에는 GKL 사회공헌재단의 사운드워킹 장비 기증식과 장비사용 및 관리 방법에 대한 이론 교육을 진행했으며, 2일 차에는 죽녹원과 한재골에서 사운드워킹 투어를 직접 시연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여한 문화관광해설사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관광지 해설 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 참여하는 관광해설에 대해 알게 됐다”며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꾸준히 해설 품질을 높이

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설은 관광과 관광정책팀장은 “사운드워킹 청각여행은 해설과 함께 관광지의 소리 풍경에 집중하는 생태 교감 여행”이라며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한국의 언어인 자연의 소리로 외국인, 어린이, 관광 약자까지도 함께할 수 있는 여행콘텐츠인 만큼 국내를 넘어 전세계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의 주요 관광지 6개소에서 관광 해설을 제공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은 담양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알리며 관광 사업의 최일선에 서 활동하고 있다. 담양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담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맞춤형 해설 및 다양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담양=정승균기자



## 순천 '당산나무 할아버지' 4명 위촉

### 국가유산청 선정, 명예 활동 자격...자연유산 관리 역할

국가유산청이 순천 지역에 '당산나무 할아버지' 4명을 위촉했다. 10일 순천시에 따르면 당산나무 할아버지는 국가유산청이 자연유산 보호·관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해 마을 주민에게 명예 활동 자격을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자연유산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 중심점 역할 확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유산관리를 목표로 2022년부터 시작했다. 지난해까지 44명이 위촉됐고, 올해는 전국 총 14명 중 순천 지역에서 4명의 당산나무 할아버지가 위촉됐다. 순천 당산나무 할아버지는 ▲순천 평중리 이팝나무(천연기념물)가 위치한 평지마을에서 수시 모니터링을 진

행하는 이경우 이장 ▲순천 송광사 천지암 쌍향수(천연기념물)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천지암 범용(사진) 주지스님 ▲순천 평촌리 이팝나무(도 기념물)의 세대 전승에 앞장서는 농소마을 유수열 이장 ▲낙안 교촌리 은행나무(도 기념물)의 보존관리에 힘쓰는 최관호 이장 등 총 4명이다. 이들은 앞으로 각 지역에 있는 자연유산의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향후 자연유산과 관련 있는 민속행사 개최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위해 당산나무 할아버지 제도를 적극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정기기자